

급진적으로 사랑하기(누가복음 10)

성경말씀: 눅6:27-3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제자의 인간관계

신약과 구약의 인간관계

신약과 구약은 인간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신약은 어느 면에서 불가능한 인간관계를 요구한다. 구약 시대의 규정: 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마22:34-40).

1. 창조주 하나님 사랑, 2. 옆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 원수가 아닌 이웃

3.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레24:20; 신19:21), 다른 이방인들은 죽임. 큰 향상

4. 이방인들의 인간관계 규정, 인지상정: 27-30절을 거꾸로 하는 것, 자연적인 관계

예수님의 요구: 31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 “내가 잘못해도 용서” 등 구체적으로 이것은 35절에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마5:43-44)로 집약됨.

‘급진적’ 사랑,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야! 그럴 수가 있어?”, ‘초자연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 이것은 마5의 산상수훈처럼 어느 면에서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왕국에서의 윤리 규범이라 볼 수 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신약시대에는 35절에 있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이런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다.

세상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세상과 대조되는 급진적인 삶을 살.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

엄밀히 말해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개조가 아니다.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과 세상 권력이 탄압해도 가능하면 세상 방법과 역행하는 급진적인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예: 요13:1-17에서 죽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심, 그리고는 사랑하라고 하심(요 13:34-35). 유다는 마귀임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다(13:1).

눅23:34에서 십자가 처형을 수행하는 죄인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 급진적 사랑

스테반(눅7:59-60), “주여, 이 죄들의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급진적 사랑

바울 포함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하에 죽어갔고 중세 성도들이 카톨릭 교회의 탄압 아래 죽어갔다.

그러면서도 35절 말씀대로 급진적 사랑, 초자연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급진적인 사랑의 기준

32절: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33절: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감사한다.

34절: 죄인들도 빌려 줄 때에 다시 받을 것을 예상하고 빌려 준다.

32-34절: 자연적인 사랑에는 칭찬할 것이 없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김정은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새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오늘은 세대주의적 해석/구원 해석을 제쳐두고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이대로 해 볼 것을 생각하려 한다. <급진적으로 사랑하기> 혹은 <잘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기독교의 사랑: 급진적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사랑,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과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다(요3:16).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

롬5:6-8, 10, 다른 종교 및 철학에서는 상상 불가능,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실행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 사랑, 채리티라고 표현한다.

채리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본성은 원치 않아도 의지적으로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것

본성대로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약 성경의 성도: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는 급진적인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초자연적인 행위(27절): 선을 행함, 초자연적인 말(28절): 축복, 초자연적인 기도(28절)

급진적인 사랑의 예(눅6:29-31)

매만 맞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함.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을 맞본 사람이라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1, 35절이 핵심: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 호네커 동독 국가 평의회 의장(서기장)과 그의 부인은 갈 곳이 없음
우에 홀머(Uwe Holmer) 목사는 자기 집으로 이들을 데려옴. 호네커의 부인은 26년 동안 교육 시스템
관장, 홀머 목사의 10아이 중 8명이 반 크리스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함.
이런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
홀머 부부는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였다(27-28).

초자연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늘의 보상이 크다(35).

돈을 바라고 결혼하면 탐욕가이다. 결혼은 사랑을 위해 해야 한다. 그러면 결혼 자체가 사랑의 보상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때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소유, 이것이 큰 보상이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으로 사람을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

유대인들의 용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존재가 된다는 것

홀머 목사 부부의 호네커 부부 대접: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본성으로 행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벧후1:4), 구원받으면 이런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갖는다(36). “남이 나보다 나올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마5:47-48,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지난 주 하와이 여행: 아내와 무지 많이 다투었다. 여행 가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같이 안
다니겠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나는 일 중심, 아내는 사람 중심, “오늘 일끝내고 몇
시까지 어디 어디 구경 가자”고 하면 나는 그 시간까지 거기 가는 것이 목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아내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늦어도 되고 안 늦어도 되고. 사람 중심, “이해가 안 된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은 이런 마찰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서 8일을 함께하니 너무 맞지 않음.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름(이것도 이해가 안 됨). “결혼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서 배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결혼에 성공한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 식으로는 결혼 성공 불가능”

2년 전에 결혼 시리즈에서 내가 설교한 내용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급진적 사랑”,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나를 그리 사랑하셨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봄: 이제껏 내 일 하느라 살지 않았는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영원토록 그들의 뇌리에 좋은 인간으로 기억되게 해야겠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본 설계 목적: 큰 업적, 교회 중요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더 중요
성도들도 조금 더 너그럽게: 지금까지 원리 원칙대로 차갑게 대한 것 반성,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기본 인성

결론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옆의 성도,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을 지독히 미워하고 저주하는가?

주님의 요청: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어라.

급진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부 간에 이 사랑이 더욱 넘쳐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건설적으로 풀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급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사랑하셨다.

과거부터 우리가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형제님이 내게 보내 준 편지:
저도 일찍부터 아내와의 기나긴 투쟁(?)을 거쳤고 이제야 부족함이 조금 채워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에서 서로의 성장 환경이 너무 달라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아내의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내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나의 도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태도도 바뀐
것 같습니다.
5월 어느 날 시골에 가 있는 아내에게 “당신은 5월의 여왕입니다”라는 몇 문장의 엽서와 꽃을, 어설피지만
예쁘게 포장해 보낸 게 아내에게 조금 감동을 주었는가 봅니다.
부부 간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며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산은 높아 보입니다.
결국 부부 간의 문제에서 장사는 없고 나도 예외가 아니며 언제든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죽고 싶었을 때에는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전9:4)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살아 있는 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